

국제표준화소식

성대히 막을 내린 제 1 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1996년까지의 새로운 작업프로그램과 450여개의 표준을 승인

WTSC회의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93. 3. 1 ~ 3. 12까지 개최되었는데 총 68개국에서 459명의 대표와 8개의 국제기구에서 참가하였으며, 회의진행은 헬싱키 공과대학 교수인 Mr. Halme가 의장으로, Messes J. J. Silva(브라질), Wang Zhanning(중국), Y. A. Tolmachev(러시아), S. Mbaye(세네갈), E. S. Barbely(미국)등이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회의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세계 표준화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ITU의 전기통신표준화분야(TSS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를 보다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ITU에서 표준화를 다루는 합법적인 기구로서의 마지막 회의였던 '88년 멜버른 회의(그 당시는 총회라 불리워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멜버른 회의에서 구조, 조직, 문서화, 작업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특히 표준승인방법을 채택하는데 가능한 한 산업체와 시장의 욕구에 맞추도록 하였다.

이번 헬싱키 회의에서 ITU는 한 단계 더 큰 진전이 있었는데, 전기통신 표준관련 다른 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권고하였고, 작업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분야(TSS) 활동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검토하는 별도의 자문그룹을 두기로 하였다.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 Telecommu-

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시장, 이용자 및 산업체의 욕구에 맞춰 연구반(Study Groups)의 작업내용을 할당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분야(Sector)별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주제(Subjects)가 타당함을 검토하는 합동조정반(JCG : Joint Coordination Group)을 두기로 권고하였다.

이 TSAG은 세계적인 통신망을 건설하는 데 새로운 힘을 ITU에게 제공할 것이며, TSAG 의장에는 Mr. B. Horton(호주), 부의장에는 Mr. J. M. Fanjul Caudevilla(스페인)이 선출되었다. 연구중인 연구과제가 다수의 전문가 그룹(Experts Group)들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전파통신분야와 관련성이 깊은 경우 효율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커니즘을 탄생시켰는데, JCG라는 합동조정반과 ICG(Intersector Coordination Group)라는 양분야간 조정반으로서 업무가 겹치거나 누락되는 것을 피해 효율적으로 표준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업 자체는 관련된 연구반(SG)들에 의해 수행되며,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JCG역할에는 ETSI, TTC, T1과 같은 타 표준화기구와의 협력관계도 포함된다.

JCG에서 다룰 분야로는 전기통신관리망(TMN), 종합개인통신망(UPT), 광대역 ISDN,

오디오 비디오/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QOS와 망 성능 분야이며, 이 중 3분야는 ETSI, TTC T1, ITU등으로 구성된 표준화기구연합인 지역간 전기통신표준화회의(Interregional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의 세계 표준화협력위원회(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Group)에 의해 이미 핵심 표준화분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표준제정절차에서 EDH(Electronic Document Handling)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TSAG산하에 EDH그룹을 두어 이용자의 욕구에 맞도록 EDH개발을 모니터하고 개선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로 EDH 표준화 Tool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WTSC에 의해 승인된 EDH 모델을 근간으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즉 개발할 통합계획(migration plan)에 필요한 ODA 및 X.400을 근간으로 중간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이용자에게 편리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이번 WTSC에서 공식적으로 ITUDOC(ITU's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Service)을 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1988년 이후 승인된 ITU 전기통신표준의 전체내용뿐만 아니라 관리 및 일반정보문서도 포함하고 있으며, ITUDOC 이용자는 최신의 모든 표준을 즉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ITU 전기통신권고를 CD-ROM화한 것도 이번 회의에서 선뵈었는데, Dr. Tarjanne은 개회사에서 “오늘,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전자출판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이는 ITU의 완벽한 개혁정책의 일단으로 표준발간 활동에 최신기술이 적용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즉, 여전히 중요한 발간의 형태로 남을 기존의 인쇄방법에 추가하여 온라인 ITUDOC서비

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어 여러분들의 Desktop컴팩트 디스크로 권고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적절한 규격과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표준채택 시간의 상당한 개선을 이룩했던 멜버른회의에서 채택된 메카니즘은 (평균 4년에서 18개월정도로 줄어듦) 개발도상국의 우려표명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신속승인처리 절차로 승인된 권고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를 전기통신 표준화국(TSB)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국장은 해당 연구반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표준 제정을 보다 신속히 하고 효율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다른 세계적인 지역표준화기구와의 연계활동을 강화시켜 ITU가 표준환경을 지원하는데 능동적이며, 즉시처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즉 지속적으로 시장, 산업 및 이용자의 욕구를 모니터링하여 TSS의 작업을 조정하고, ITU작업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ITU 표준화작업에 광범위한 참여(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등)문제는 ITU이사회에 의해 채택될 권고를 근간으로 교토에서 개최될 차기 전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15개 연구반(SGs)의 작업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연구반들은 시스템의 운용, 성능,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통신시스템,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국제통신에 필요한 요금원칙과 정산방법등에 대한 작업도 포함하였다.

1993~1996까지의 작업프로그램은 총 289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되었고, 새로운 ISDN서

비스, 텔리매틱용 디렉토리서비스, 컬러팩시밀리, 프로그래밍 통신인터페이스, ISDN용 텔리매틱, 장기적 지능망구조 및 지능망능력세트(IN Capability Sets), FPLMTS용 신호요구사항, 물리적으로 손상된 통신, 복합 비디오서비스, 광대역 ISDN을 이용한 광대역 비접속형 데이터서비스, 광통신시스템, 동기식디지털전송계위(SDH), 비동기식 전달모드(ATM) 장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표준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전파통신분야(RS : Radio-communication Sector)의 연구과제가 전기통신표준화분야(TSS)로 이관된 것이 있었는데, 쉽게 실용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Issues들이 전기통신표준화분야의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전파통신분야(RS)에서 전기통신표준화분야(TSS)로 이관하는 Issue들 중, 전파통신분야(RS)와 관련이 깊은 과제는 별도의 추가 자금 부담없이 전파통신분야 전문가의 전기통신표준화부문(TSS)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이번 WTSC에서는 조정연구반(Cordinating SGs)을 두어 전기통신표준화분야로 이관키로 한 과제와 함께 기존의 전파통신분야(RS)에도 동일하게 할당된 모든 연구과제는 각 조정연구반 의장에게 이송될 것이며, 조정연구반은 이송되어온 작업요소에 대한 다른 연구반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조정연구반 의장들은 Issues를 작업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전파통신분야(RS)의 해당 연구반과 함께 검토하고, Issues에 관한 연구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또 조정연구반 의장은 어느 TSS 또는 RS의 연구반이 연구과제를 맡고, TSB국장에게 자문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TSB국장은 '93. 6월 개최될 예정인 TSAG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제출할 것이다.

'93. 6월 개최될 TSAG회의와 전파통신분야 Ad Hoc Group과의 합동회의에서 공식적인 승인절차 또는 TSAG의 권고방법을 통해서 공식적인 통합연구과제가 작업프로그램에 반영될 것이며, 전파통신분야의 작업프로그램에 대한 삭제는 '93. 11월에 개최될 차기 전파통신총회(RA : Radiocommunication Assembly)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ITU사무총장인 Mr. Pekka Tarjanne은 폐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는 표준화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유지시키도록 기여한 ITU의 지속적인 개혁에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겼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가전권위원회(APP :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의 결과와 함께 매우 훌륭한 플랫폼을 제공하였다”고 치하하였다. “1989년의 니스 전권위원회에서는 개발분야(Development Sector)에 대한 큰 변혁을,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에서는 전파통신분야에 대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고, 전기통신표준화분야에서는 1988년 멜버른회의부터 시작하여 1989년 니스, 1992년 제네바 및 1993년 헬싱키회의에 걸쳐 큰 변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우리의 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1994년 교토와 1996년 또는 1997년에 개최될 차기 WTSC회의에서 보다 많은 변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의장을 맡은 Halmer교수는 이번회의의 성과를 조명하면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통신망과 분산지능(Distributed intelligence)과 관련이 깊은 Q-계열 권고를 포함하여 450여개의 표준을 채택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WTSC '93의 또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전기통신표준화분야의 장래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SAG)을 설치하기로 한데 있고, 차기 연구반의 작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즉 의장단)의 지명 또한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4년동안 “데이터망 및 개방형 통신”분야의 7연구반(SG 7)을 의장과 같이 운영해 나갈 부의장으로서 임주환 박사(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장)가 피선되어 국내 최초로 전기통신표준화분야의 의장단에 진출하게 되었다.)

교통체신부장관인 Mr. Ole Norrback은 이번 회의에 의해 수행된 작업을 회상하면서, “새로운 통신망과 응용을 표준화하는데 거보를 내딛었으며, 광대역 ISDN 개발을 통해 회사 및 가

정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텔레매틱과 방송서비스는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며, 지능망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핀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번호계획의 개편문제를 완화할 것임을 말했다.

Mr. Norrback은 “세계 일부지역에서의 전쟁과 혼란은 통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힘든 작업끝에 얻은 결과를 망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모두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자유롭게 상호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평화적으로 글로벌 통신망을 개발하고 구축할수 있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